

익산시, 국식클 2단계 추진 잔걸음

정현을 시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 본사 방문... 투자유치 강구

익산시가 세계 식품산업 전진기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969년 창립 이후 대기업, 영커기업, 중견기업 등 19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협회이다. 식품기업 수출지원, 지식재산권보호, 특수영양식품 및 의료용도 식품 심의, 기타 원료 공동구매 등 식품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식품산업 협회를 비롯해 협회 회원사와 푸드테크 전문 신단으로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유치 활성화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시는 5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진행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 대상 워크숍에 참석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계획 알리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농심 매일유업 등 약 20개사를 대상으로 2단계 추진 전략 및 혜택,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며 활발히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이 서울에 소재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본사를 방문해 김명철 상근부회장을 면담하고 식품산업 발전 및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시 방문단은 협회 산하 한국식품과 학연구원 등을 둘러보고 국내 최고 수준의 각종 식품 관련 검사 시설을 견학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도모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장 '익산상생샵'이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 맞이에 나섰다.

'익산상생샵' 새단장 마쳐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중앙동 문화예술거리로 이전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장 '익산상생샵'이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 맞이에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2년 도내 1호, 전국 4호로 개소한 '익산상생샵'이 중앙동 문화예술거리로 이전해 운영을 재개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고객 확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존 홈플러스 익산점에서 중앙동으로 상생샵을 이전했다. 전체 된 중앙동 상권 부흥을 위해 치킨로드, 청년몰 등과 연계해 구도심 활성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상생샵은 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사회서비스 등 2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든 6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상품을 판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진행해 사회

적경제와 착한소비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제품 판매 시기에 맞춰 시식회, 체험전, 명절선물 기획전 등 다양한 맞춤형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카드 결제도 가능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생샵 이전 개업을 맞아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구매 금액대 별 사은품을 증정하고 인기상품 특가할인 등 판매기획전도 진행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와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동으로 상생샵을 이전했다"며 "구도심 활성화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상생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깨끗한 군산바다' 만들기 총력

해양쓰레기 정화 등 8개 사업 추진, 올해 총 2040톤 처리 목표

군산시가 '깨끗한 군산바다'를 위해 올해 30억원을 투입한다. 군산시는 예산 투입을 통해 해양쓰레기 2040톤을 수거하고, 시민의 해양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

는 등 깨끗한 군산 바다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단 군산시는 올해 '깨끗한 어촌, 살기 좋은 군산' 조성을 목표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중 인양쓰

레기 수매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해안정화 사업 △민간단체 해양 개선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화사업은 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양쓰레기 처리량은 늘리고 발생량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간 군산시는 278.36km(육지181.54km, 도서 96.82km)에 달하는 긴 해안선 등 지리적 영향과 관광객 유입으로 다량의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군산시는 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련 기관·단체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 해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깨끗한 군산바다'를 위해 올해 30억원을 투입한다.

군산시,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

군산시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적응까지 돕는 토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될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직장 적응 곤란으로 인한 조기퇴직 및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청년카페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 개별·집단 심리상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 청년정책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취업 지원 공간으로 군산시는 (주)제이비커리어,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시 청년카페에서는 청년 210명

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경력설계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해주며, 기업의 CEO, 중간관리자, 인사관리자 등을 대상으로는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신입 재직 청년 5명을 대상으로는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온 보딩 교육 등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문화유산 야행·서동축제, 야간 시티투어 운영

익산시가 봄 밤의 정취를 자아내는 시티투어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다. 시는 5일 시티투어와 야간 관광 자원을 활용한 '별밤 투어'를 진행하고 밝혔다. '별밤 투어'는 익산 문화유산 야행(夜行)과 '서동축제'를 연계한 야간 시티투어로 축제 일정에 맞춰 오는 19~21일과 5월 3~6일에 운영된다. 일정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아가페정원, 고스라 등 사진찍기 좋은 관광지를 둘러본다. 이어 중앙시장 일원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익산 문화유산 야행 또는 서동축제를 관광한 후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한다. 시는 관광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중앙시장 상상노리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투어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지역 관광명소에 대한 폭넓은 해설로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별밤 투어'는 전화(063-231-9966)·카카오톡(@conding24)을 통해 상시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7,000원이고 시티투어 감면대상자는 6,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농기계 12개 기종 종합보험료 80% 지원

익산시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농기계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배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터 등 12종이다.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면 평균 지불담은 경운기 연 1만 1,000원, 승용이앙기 2만 5,000원, 트랙터 8만 6,000원, 콤바인 26만 4,000원 정도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공동주택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군산시가 올해 총 7,500만 원을 들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와 청소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 통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소파나 정수기 등 비품 교체·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이 사업을 통해 2022년 27개 단지 1억 2,000만원, 2023년 15개 단지 7,3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 현장 조사 및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